신원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 관련 자유 활동 (3)
지도교사: 김태용, 이다원

읽고! 생각하고!

2학년 5반 17번 김연우.

*** 자율적으로 책을 읽고 다음 양식에 따라 독서 후 활동지를 작성해 봅시다.**

1. 첫 느낌

자신이 읽은 책의 이름, 저자, 출판사를 적고 자신이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제목이나 책 표지 등) 느낌을 솔직하게 써 봅시다.

책의 이름: 동물농장, 저자: 조지 오웰, 출판사: 한국헤르만헤세. / 내가 이 책의 제목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이 책이 유치하고 TV 동물농장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표지는 돼지가 왕관과 목걸이를 매고 위스키를 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어서 되게 의아했다.

2. 명장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인상적이었거나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장면/내용을 적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써 봅시다.

2-1. '동물들의 반란' - 동물들은 농장 주인인 존스네 농장 동물들이었다. 동물들은 제때 밥을 먹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일찍 일어나야만 했다. 또한 잠자리도 좋지 않아 잠을 못 자기도 했다. 이런 똑같은 힘든 삶에 불만을 가진 동물들은 메이저 영감의 지시에 따라 반란을 준비했다. 그리고 존스와 그의 가족, 일꾼들까지 모조리 내쫓았다 / 만약 나였어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동물들이 이겨냈고 이 장면으로 인해 뒤의 내용이 모두 바뀌었으므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 생각했다. 또한 존스와 그의 가족, 일꾼들이 모두 동물들에게 집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 웃겼다. 그래서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다.

2-2. '쫓겨난 스노볼' - 나폴레옹이 농장에 풍차를 건설하자고 하자 스노볼은 반대한다. 이에 짜증과 화가 난 나폴레옹은 스노볼을 농장밖으로 내쫓았다 / 이 장면은 스노볼이 나폴레옹의 감정 때문에 어이없게 쫓겨난 것이다. 나는 이때부터가 진정한 나폴레옹의 독재가 시작된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스노볼이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미래의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스노볼이 너무 불쌍했고 나폴레옹이 좋은 돼지였을 줄 알았는데 아니여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장면을 명장면이라 생각한다.

2-3. '돼지와 인간' - 돼지들은 존스네 집을 차지한 이후로 인간을 멀리했다. 또한 인간을 마주쳐도 가까이 가서도 안됐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돼지들이 인간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 이 장면은 내가 뽑은 3개의 명장면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일은 동물들 삶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아예 술을 먹고 놀고 있으니 놀라울 수 밖에 없다. 돼지들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있어 정말 인상깊었다. 또한 마지막인 장면이라서 뒷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하다. 복서가 나폴레옹의 지배에 않았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른다.

3. 오! 멋진데?

책 속의 인물들 중 인상 깊은 인물을 한 명 골라 골라 삶의 모습을 간추려 적어보고, 그 사람의 삶이 인상 깊은 이유를 밝혀 봅시다.

복서의 삶이 가장 인상깊었던 것 같다.

-> 복서는 우둔지 열심히하고 힘도 세지만 똑똑하진 않은 말이다. 복서는 나폴레옹의 풍차만들기 작전에 열심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며 성실히 지냈지만 정신을 잃은 순간 도살장에 끌려가 죽게 된다. 복서는 참 불쌍해서 가장 인상깊었던 인물이었다. 끝이 너무 참혹해서 더욱 불쌍한것 같다.

4. 링크 링크

내가 읽어 본 다른 책, 시청했던 TV 프로그램, 그 밖에 기억나는 뉴스, 신문 기사, 영화, 음악, 인터넷 등을 통해 접했던 다른 인물이나 사건 중 이 책의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써 봅시다.

이 동물농장은 1917년 2월 혁명에서 1943년 테헤란 회담에 이르기 까지 옛소련에서 벌어진 일들을 동물들에 빗대어 표현한것이다. 맨 처음에 반란을 예언했던 늙은 돼지인 메이저는 '마르크스'를 뜻하며, 독재자 돼지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나폴레옹에 의해 쫓겨난 돼지 스노볼은 스탈린에게 축출된 '트로츠키'를 빗댄것이다. 또한, 모든인물과 모든 사건들은 각각 뜻하는것이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만 쓴다면 복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이고, 동물들의 반란은 러시아혁명 이며 외양간전투는 1918~1919년 1년간의 연합군 침공이다. 마지막으로 돼지들을 호위했던 개들은 비밀경찰을 빗댄것이다. 이를 알고보면 훨씬 이해가 잘 갈것이다.

5. 왜 썼을까?

글쓴이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그러한 의도가 잘 전달되었는지 평가해 봅시다.

글쓴이는 동물들의 행동, 삶을 통해서 (특히 나폴레옹의 독제나, 말바꾸기 등) 우리 현대 사회의 부정적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것같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책략에도 눈치채지 못하는 다른 동물들의 모습을 보니 그게 마치 정치가들의 속내를 모르고 그대로 당하는 시민과 같다. 나는 이러한 의도가 굉장히 잘 전달되었던 것같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날 수 있게 어떤 연령이어도 (너무 쉬움X)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잘 쓴 것 같다.

6. 깨달음/변화

책을 다 읽은 후 새롭게 깨달은 점, 혹은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 자신이 변화한 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이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됐다. 그만큼 나폴레옹의 독제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아무것도 모른채 노동착취를 당한 다른 동물들이 너무나 불쌍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나폴레옹의 의견에 반대했을 때 강제로 사과하게 하고 거짓된 이야기까지 꾸며서 자백하게 한 나폴레옹이 너무 잔인했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어 투표를하거나 정치가가 되거나 했을 때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